

“나 위로하자고 앨범 만들다니, 이렇게 못돼 처먹을 수 있나”

김창완, 37년 만의 솔로 앨범 ‘문(門)’ 발매

타이틀곡 ‘노인의 벤치’, 자신의 성향 닮아

“위로를 말하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러워요. 위로라는 것은 비단 요즈음에만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인간은 원래 낙관하니까, 어느 시대든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타인을 위로하는 것도 너무 소중하지만 ‘나를 어떻게 위로하고 살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위로가 특히 필요한 시대에 가수 겸 배우 김창완의 솔로 앨범 ‘문(門)’은 제때 도착했다. 그의 37년 만의 솔로앨범이지만 늦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다.

‘문(門)’에 실린 11곡은 ‘몽근한 희망’을 안긴다. 좋은 노래는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긍정의 신호임을 깨닫게 한다.

“시간은 모든 것에 무관심했지만 / 추억을 부스러기로 남겼지 / 가끔은 생각이나 지나온 날들이 / 그 시간들이 남의 것 같아~”(노인의 벤치) 중.

김창완이 이번에 정규 앨범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타이틀곡 ‘노인의 벤치’는 삶을 함부로 꺼안고 관찰하거나 관조하는 대신, 살면서 어깨동무를 하며 도닥도닥 어깨를 두드리는 그의 성향을 닮았다.

누구보다 음악의 가능성을 신봉하는 사람이 뮤지션이지만, 김창완은 그걸 강요하거나 단정하지 않는다. 삶의 불완전함의 굴곡을 드러내는 것이 예술가들의 일이란 걸 김창완은 깨닫게 한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김창완을 만나자마자 “문(門)”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털어 고백했다.

그는 “이번 앨범을 미리 들은 분들이 ‘뭔지 모르겠는데 울컥한다’고 하세요.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는데 슬프다’고 하고요”라며 고개를 조심스럽게 끄덕였다.

“어쩌면 (앨범에 담긴 정서를) 우리가 잊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의도하고 만든 앨범은 아니에요. (앨범에 실

린) ‘시간’은 4년 전에 발표한 곡이고요. 그런데 들으면서 눈물이 난다는 건, 우리가 무심하게 지내온 날이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해요.”

그러면서 김창완은 울지도 못하고 사는 세상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우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죠. 눈물을 흘리면, 곧바로 실패자로 낙인을 찍고요. 우리는 카타르시스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올해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로 손꼽히는 tvN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사람 좋은 얼굴로 모든 걸 꿰뚫는 관찰은 정신병원 원장 ‘오지왕’의 표정으로 김창완은 말했다.

“시간은 화살처럼 앞으로 달려가거나 / 차창 밖 풍경처럼 한결같이 뒤로만 가는 게 아니라 /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멈춰 서있기도 한단다 / 더 늦기 전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시간)

김창완은 1977년 사이키델릭 밴드 ‘산울림’으로 데뷔 후 가수, 배우, DJ, 작가, ‘김창완밴드’ 리더 등 다방면에서 활약해왔다. 다만 그간 솔로 앨범을 내놓지 않았다. 솔로 앨범은 1983년 ‘기타가 있는 수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앨범의 부제로 ‘시간의 문을 열다’를 붙인 김창완은 바쁜 일정으로 매일 시간에 매여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의 시간에 대해 돌아볼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

“어느 날 문득, 내 몸·내 마음의 시간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실존으로서 ‘시간의 끝’이 내 존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 결국 제게 위로를 전하는 앨범이 된 거예요. ‘나 위로하자고 앨범을 만들다니, 사람이 이렇게 못돼 처먹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하.”

“자신을 위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위로할 수 없지 않겠냐고 묻자, 씩스러운 듯 ‘씨익’ 미소로 답을 대신했다.

이번 김창완의 앨범을 들으면, 미국 영화감

독 크리스토퍼 놀란을 떠올릴 이들도 꽤 될 것이다. 할리우드 SF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영화감독과 한국의 ‘어쿠스틱 대명사’인 김창완에게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그런 ‘비가역적인 시간’의 개념을 다루는 방식이다. 놀란은 ‘인터스텔라’에서 웜홀을 통한 이동과 블랙홀 너머 4차원의 공간을, 최근작 ‘데넷’에서는 순방향의 시간과 역방향의 시간을 한 장면에 담아내는 성취를 이뤄냈다.

김창완의 노래에서도 과거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이 살갑게 공존한다.

37년 전 ‘어머니와 고등어’에서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보다”는, 이번 앨범에서 시간의 문을 열고 들어가 “옥수수할머니 옥수수 찐다”로 연결이 된다.

일상의 풍경을 노래로 끌고 들어가, 투박한 생명력을 슬며시 노래하는 건 김창완의 전매특허다.

노랫말이 “보고싶어 어머니 / 보고싶어 아버지”가 전부인 ‘보고 싶어’에서는 기타로 연주한 민요 ‘한오백년’의 멜로디가 내내 흐른다. ‘시간’에서는 “시간은 모든 것을 태어나게 하지만 언젠간 풀려버릴 태엽이지 / 시간은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지만 찬란한 한순간의 별빛이지”라고 통찰한다. 김창완이 풀어놓은 음악적 시간의 새 영역이다.

김창완은 “최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개념이 있었어요. 내 시간과 상대방의 시간은 다르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라고 털어놓았다.

가상의 장면이 찍힌 사진을 그 예로 들었다. “2억3000만 광년 떨어진 별을 2020년에 같이 보고 있다고 칩시다. 2억3000만 광년에 걸쳐 도달한 별빛은 지금의 빛이 아니잖아요. 이미 죽어있을 지도 모를 별의 빛일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의 모습과 그 별빛이 한 컷에 담기면, 과거 그리고 너와 나의 시간이 모두 같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빛을 찍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 다르지만, 같은 시간을 체험하는 거죠.”

멜로디와 박자가 흐르는 라이브 음악은 ‘시간의 예술’로 통하는데, 그걸 피상적으로 느끼고 있다가 이번 앨범을 작업하면서 체감을 하



기도 했다.

“순간이 영원이고, 영원이 순간이라는 말은 그럴 듯해요. 무엇보다 자기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살잖아요. 그런 만큼 자신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우주의 어떤 역사가든 일부인다는 사실도 됩니다. 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생에서 음의 순간이나 의미를 깨닫는 것들이 너무 소중한지는 겁니다.”

앨범 작업을 하면서 나름의 깨달음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것이 있다. “이런 개인적인 체험이 음악을 통해 어떤 설득력을 가질까”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렇게 김창완으로부터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걸 함부로 강요하지 않는, ‘좋은 어른’의 모습을 본다. 김창완의 ‘나의 의미’를 재해석한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그를 롤모델로 꼽고,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김창완의 예세이집 ‘안녕, 나의 모든 하루’를 잘 읽었다며 소셜 미디어에 존중의 표시를 남긴 이유다.

“세대를 역으로 구분하는 건 자기 배를 가르고, 허리를 자르는 것과 같아요. 장맛을 하나 지키는데도 3대가 필요한데 인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대는 수없이 누적돼야 하죠. 그러니 세

대를 구분하고나 반복시키기 보다 쉼 없이 잘 쌓여 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김창완이 동요에 대해 꾸준히 애정을 가져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산울림 시절에 이미 ‘산 할아버지’, ‘개구쟁이’ 같은 ‘동요’를 발표했던 김창완은 지난해 생애 첫 동시집 ‘무지개가 된 방이불방방’을 출간했다.

이번 앨범에서는 ‘옥수수 두 개에 이천원’과 함께 ‘글씨나무’가 그런 걸의 곡이다. “글씨나무가 자란다 장난감 써서 불여라 글씨나무가 자란다 내 이름도 불여라 / 초록색 칠판위에 커다란 나무 그리고 / 예쁘게 글씨를 써서 마음대로 불여라.”

어느날 분교를 방문한 김창완이 아이들이 칠판에 빼곡하게, 희망이 담긴 글을 적는 걸 보고 만든 곡이다. “아이들은 글씨를 적어 벽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걸 가졌다’고 생각하겠죠. 하하. 그런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글씨 하나하나가 나무처럼 자라서 하나 하나의 꿈이 되는 거 같아요.”

김창완의 멜로디 하나, 노랫말 하나에도 여전히 꿈의 시간이 담겼다.

뉴시스

블랙핑크, ‘리브식 걸즈’ 글로벌 유튜브 송 2주 연속 1위

지난 1주일 동안 가장 많이 본 뮤직비디오 역시 ‘리브식 걸즈’



그룹 ‘블랙핑크(BLACKPINK)’가 글로벌 유튜브 송 톱 100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19일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유튜브가 18일 발표한 최신 차트(10월9~15일 집계)에서 블랙핑크의 ‘리브식 걸즈(Lovesick

Girls)가 글로벌 유튜브 송 톱100 정상에 올랐다. 또 지난 1주일 동안 가장 많이 본 뮤직비디오 역시 ‘리브식 걸즈’였다.

‘리브식 걸즈’는 각종 음악방송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날 방송된 SBS ‘인기가요’에서 1위에 오르는 등 지난 11일 첫 컴백 무대 이후 지금까지 음악방송 트로피 총 5개를 품에 안았다.

앞서 ‘엠카운트다운’, ‘쇼챔피언’, ‘뮤직뱅크’에서 연달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블랙핑크는 첫 정규앨범 발매 후 예능부터 다큐멘터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예능프로그램인 JTBC ‘아는 형님’, SBS ‘런닝맨’에 완전체로 출격해 예능감을 뽐냈다.

다큐멘터리 ‘블랙핑크 : 세상을 밝혀라(Blackpink : Light Up the Sky)’는 14일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전체 무비 차트 2위, 28개국 1위 콘텐츠로 떠올랐다.

블랙핑크는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ABC의 유명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Jimmy Kimmel Live!)’, 그 다음날에는 ‘굿모닝 아메리카(Good Morning America)’에 출연한다.



배우 이주영, 영화 ‘삼진그룹’ 출연 확정

고아성·이숨·박혜수와 호흡

배우 이주영이 21일에 개봉하는 영화 ‘삼진그룹’에 출연한다.

영화 ‘삼진그룹’은 1995년 입사 8년차, 업무능력은 베테랑이지만 늘 말단. 회사 토익반을 같이 듣는 세 친구가 힘을 합쳐 회사가 저지른 비리를 파헤치는 이야기다.

극 중 이주영은 회사의 전체 전략을 계획하

는 전략기획실 사원 송소라 역으로 분한다. 시니컬한 성격으로 회사 일에 무심해 보이지만, 은근히 정보를 흘려주며 세 친구를 도와주는 키 포인트로 활약할 예정이다.

모델 출신 배우 이주영은 2015년 영화 ‘몸값’으로 데뷔했다. 이후 영화 ‘보이스’, ‘아무도 없는 곳’, ‘독전’, ‘미쓰백’, 드라마 ‘보건의사 안은영’, ‘뽕뽕걸즈’, ‘라이브’ 등에 출연하며 입지를 다졌다.

‘소리도 없이’ 개봉 첫 주말 1위...18만 4천여명 관람

박스오피스 2위, ‘담보’

배우 유아인과 유재명 주연의 영화 ‘소리도 없이’가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

19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소리도 없이’는 개봉 첫 주말인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18만4237명의 관객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했다.

현재 누적 관객 수는 22만380명이다. 지난 15일 개봉한 ‘소리도 없이’는 유괴된 아

이를 의도치 않게 맡게 된 두 남자가 그 아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박스오피스 2위는 ‘담보’가 지켰다.

지난 주말 11만4546명의 관객이 찾았고 누적 관객 수 15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누적 관객 수는 144만8732명이다.

‘담보’는 인정사정 없는 사채업자 ‘두석’과 그의 후배 ‘종배’가 떼인 돈을 받으러 갔다가 얼떨결에 9살 ‘승이’를 담보로 맡아 키우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성동일과 하지원, 김희원, 아역 배우 박소이가 출연했다.

신작들의 강세로 순위가 밀려났던 ‘데넷’은 박스오피스 3위에 올랐다.

주말 동안 2만486명의 관객이 찾으면서 현재 누적 관객 수는 191만1612명을 기록했다.

박스오피스 4위는 톱 하디 주연의 ‘뽕조’, 5위는 애니메이션 ‘극장판 요괴워치: 포에버 프렌즈’, 6위는 김대명과 송윤아, 김의성 주연의 ‘돌맹이’가 이름을 올렸다.

박건형 “썸씽로튼’ 성료...꼭 다시 만나길”

배우 박건형이 지난 18일 뮤지컬 ‘썸씽로튼’ 성료하며 마지막 공연 소감을 전했다.

박건형은 지난 2018년 뮤지컬 ‘바남: 위대한 쇼맨’ 이후 약 2년만에 ‘썸씽로튼’의 세익스피어 역으로 복귀했다.

박건형은 ‘썸씽로튼’ 출연 이유로 “스스로 이미지에 대해 고민 하면서 평소와 다른 조금 더 코믹적이고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많은 이들의 관심에 보답하듯 박건형은 르네상스 시대 슈퍼스타 ‘세익스피어’로 완

벽 변신해 매력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도치법 사용, 탭댄스 등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자신만의 캐릭터를 구축했다.

마지막 공연을 마친 박건형은 “관객분들의 귀한 발걸음에 보답할 수 있게 즐겁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공연하면서 저희가 더 즐거웠던 공연이다”라며 “늘 객석을 가득 채워주시는 관객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좋은 공연이 좋은 시기에 다시 올려졌으면 좋겠다. 꼭 다시 만나길 기원한다”며 소감을 전했다.